



보도시점

2024.1.22

배포

2024.1.22.

[2024년 재외동포청 정책돋보기]

‘정체성 함양 산실’ 한글학교 지원 대폭 확대**-한글학교 운영비·교사연수 예산 각 25.7%, 44.7% ↑****-이기철 청장 “한글학교와 교사, 차세대 자긍심 제고에 중요 역할”**

□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올해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의 산실 역할을 하는 한글학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전 세계에는 한글학교 1,46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들 한글학교의 기능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사 사기 진작(교사봉사료 현실화) 등을 위한 운영비와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 한글학교 운영비 예산 증액

: '23년 14,100백만원 ⇒ '24년 17,732백만원 (25.7%↑)

- 한글학교 교사연수 예산 증액

: '23년 1,856백만원 ⇒ '24년 2,685백만원 (44.7%↑)

○ 이에 따라 교사봉사료 등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교사 연수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교육 활성화, 교사 전문성 제고 등 한글학교의 기능과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사봉사료 등 운영비 지원 확대는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한글학교들의 교육환경 및 교사 처우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외동포청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가 재개교하는 한글학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외동포청은 교사 연수 예산 확충으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현지연수 지원, 온라인 학위 및 양성 과정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한글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동포청 내 전문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청은 앞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지난해 6.5.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했다.

- 전 세계 47개국에서 참가한 206명의 한글학교 교사는 지역별 소그룹 토론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한국 알리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다졌다.

- 특히, 16개국 30명의 교사는 한국 발전상 알리기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그룹 토론에서는 ▲한인화·한글학교협의회 등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 교육 당국과의 소통 창구 마련 ▲학부모-교사 협의회 등 현지 교육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한국어 및 한국의 발전상 관련 수업 개설 유도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 한국 발전상 세미나 개최 ▲학부모 대상 수업 개설 ▲현지 교과서 등의 오류 발견 시 한글학교에서 재외동포청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지원은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해외 한글학교와 교사들은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정부가 차세대 재외동포의 교육과 정체성 함양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이어, “올해 교사봉사로 등 한글학교 운영비와 교사연수 예산 확충으로 한글학교의 운영 환경이 개선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에 관한 교육도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책임자	서기관	이명재	032-585-3207
		담당자	서기관	이명재	032-585-3207